

“모의평가, 수학 빼고 작년보다 쉬웠다”

〈가형〉

‘1등급’ 국어 87점·수학(가) 88점·수학(나) 89점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지역학생 가채점 분석결과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과 광주 진학부장협의회는 지난 4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가 작년 수능에 비해 수학(가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10일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과 광주 진학부장협의회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지역 학생들의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험생들 체감 난이도는 높았지만 결과가 발표되면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 표준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5.3%였던 영어의 경우 고난도 문항이 더 적게 출제돼 1등급인 90점 이상 학생 수가 7~8%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마다 난이도 차이가 올해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진학교사들은 광주 재학생들의 성적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과목별 1등급은 국어 87점, 수학(가형) 88점, 수학(나형) 89점으로 예측했다.

서울대의 경우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인문 281점 이상, 자연 270점 이상 되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는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대 응시기준(서로 다른 과탐 I+II, II+II 조합)에 충족한 학생들 표본에 의한 자료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인문 274점 내외, 자연은 263점 정도가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65점,

광주교대는 인문 252점·자연 244점에 서 가 지원가능 점수대였다.

전남대 인문계열 학과별 지원 점수는 영어교육학과 250점, 국어교육과 247점, 행정학과 245점, 경영학부 240점, 정치외교학과 233점, 국어국문과는 231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219점 내

외로 예상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1점, 치의학과 274점, 수의예과 261점, 전기공학과 243점, 수학교육과 241점, 간호학과 230점, 수학과 226점이다.

조선대 의예과는 275점, 치의예과는 273점, 간호학과 223점, 수학교육과 210점, 기계공학과 185점이며, 인문계열에서는 영어교육과 216점, 국어교육과 211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점수는 159점 내외로 예상된다.

인문계열에서 국어·수학(나형)·사회

탐구에 지난해보다 596명 감소한 6,543명, 자연계열은 국어·수학(가형)·과탐 탐구에 794명 감소한 5,285명이 응시했다.

김형진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학과 및 배치군 자료는 2020학년도 전형계획안에 의한 것이며, 정식전형 확정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실제점 분석자료가 나오면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불리를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 결과는 오는 25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조기철 기자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하게

10일 오전 광주시 북구관계자들이 중흥동의 한 경로당에서 공기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교육청 예산 조기 집행률 전국 최하위 장휘국 시교육감 “돈 쥐고 있으면 안돼”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조기 집행률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10일 지방 교육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일 현재 조기집행 대상 사업 예산 5,764억원 가운데 2,810억원을 집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6월이 되도록 예산 집행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밑돌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조기 집행률은 6월이 되도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48.75%로 다음으로 낮은 대전(53.47%)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은 59.17%로 세종(69.34%), 충남(66.14%), 강원(66.13%), 전남(64.65%), 경북(64.55%) 등은 60%대를 기록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예산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쉽게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교육청은 광주보다 예산 규모도 크다.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교육청의 조기 집행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등 현장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 사례도 참고해 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 영향으로 국제 경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국내에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며 “학교에서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 영향으로 국제 경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국내에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며 “학교에서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 영향으로 국제 경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국내에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며 “학교에서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강간 살인범 “사형 엄벌”

선배 약혼녀 살해 ‘국민청원’ 20만 넘어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의 아버지가 범인을 사형에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인원이 답변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지난 4일 올린 글은 10일 오전 10시 현재 21만2,116명이 동의했다.

“범인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청원에서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딸은 학원 영어강사를 10여년째 하면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그런 우리 딸을 무자비한 살인마가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 졸라 죽였다”

고 주장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36)는 지난 달 27일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씨(43)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가 강간하려 하자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광주·전남 21개 유치원·학교 신설된다

시·도교육청, 학생 과밀·쏠림현상 해소 차원

광주·전남지역에 오는 2022년까지 모두 21곳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1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 광주 5곳, 전남 16곳 등 모두 21곳의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광주의 경우 내년 3월 광산구 고실중이 개교해 수완지구 학생과밀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어등초 병설유치원과 하남중앙초 병설유치원도 각각 2학급, 정원 50명 규모로 오는 9월 개원한다.

2021년에는 광주 서광유치원이 10학급, 광주예술중이 6학급 규모로 문을 연다. 가칭 광주예술중이 문을 열면 기존 광주예술고와 교육 연계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북구 용두초·남구 노대초 설립도 논의됐으나, 미정 또는 유보상태로 남아 이른 시일

내 개교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치원은 나주 매월·영광 중앙초 병설·무안 행복초 병설(9월)에 문을 열고, 초등은 여수 거문초가 이설 신축되며, 무안에서는 행복초가 9월에 개교한다. 중학교는 순천 삼산중이 이설되고, 나주 매성중과 무안 행복중(9월)은 신설되며, 고등학교는 나주 매성고와 문화예술 특목고인 광양 한국창의예술고가 개교한다. 2021년에는 초·중·고 신설계획

은 없는 대신 무안 남약신도시 오룡지구에 116억원을 들여 12학급(원아수 221명) 규모의 행복유치원이, 담양에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또 2022년에는 여수 웅천지구에 용동초와 병설유치원, 나주 혁신도시에 매성초, 광양에 특수학교인 햇살학교가 들어선다. 나주와 무안 학교들은 각각 혁신도시·남약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제기된 학생과밀·학교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등 여파로 학생수가 줄어 공립학교 신설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분산 등을 위해 신설과 이설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조울증 치료 왜 안해줘?”

도리개

○··조울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이 병원을 찾아가 다짜고짜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며 난동을 피웠다 경찰서행.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40·여)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서구 치평동 모 병원 3층에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며 소동을 일으킨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김씨는 과거에도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지만 병원비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차례 퇴원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던 인물이다”며 “갑자기 오전에 병원을 찾아와 무조건 바닥에 누워 난동을 피우면 누가 치료를 해주겠다고 나서겠느냐”고 고개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